
브라질: 마약과 빈곤의 감옥

루시아나 부아토

형법학 석사 및 박사, 리우데자네이루대학교 형법 조교수, 마약정책 및 인권 연구그룹 책임자

원제와 출처: Luciana Boiteux, "Brasil: las cárceles de la droga y de la miseria", *Nueva Sociedad*, No 268, marzo-abril de 2017, pp.14-22.

핵심어: 인권, 감금, 형벌주의, 마약거래, 브라질

이 글은 최근 다시 언론과 당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브라질의 재소자 학살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는 지속적 '형무소 위기'와 관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위기는 범죄자들에 대해 징벌적이지만 선별적인 사회의 산물이자 억압적인 마약정책의 산물이며, 이는 사법권의 용인 하에 심각해지는 과잉 투옥을 뒷받침하며 재소자들의 삶의 조건을 나날이 악화시킨다.

2016년 말은 경제위기의 심화로 특징지어지는데, 미셰우 테메르 정부는 공공 지출, 특히 보건과 교육 지출의 억제와 사회권의 축 소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도입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7년은 재소자들에 대한 돌발적

폭력으로의 회귀로 특징 지워진다. 259%라는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교도소 과밀 비율¹⁾을 보이고 있는 아마존주의 한 교도소에서 거의 60명이 참수되었고, 이러한 살육에서 후에 다른 두 개 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억압의 강화, 특히 마약거래와 재산범죄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이에 필요한 비용의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브라질의 높은 수감률은 수감 체제에 과한 부담을 주는데, 이는 교도소 환경 개선이나 재소자 감원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통제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처벌 양태의 결과다. 브라질은 재소자 수에 있어²⁾ 세계 4위의 국가가 되었다. 2014년 12월 재소자 수 622,20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306.22명에 해당한다.³⁾ 2017년 인 오늘날에 이 수는 훨씬 더 증가했을 것이지만 공식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14년 동안(2000-2014) 브라질의 재소자는 267.32% 증가했다. 브라질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에 이어⁴⁾ 높은 증가율⁵⁾을 보이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 이미 분석된 바에 따르면⁶⁾ 최근 가장 큰 증가를 보인 마약거

1) 브라질 법무부: *Levantamento nacional de informações penitenciárias*(Infopen), diciembre de 2014, disponible en <www.justica.gov.br/seus-direitos/politica-penal/infopen_dez14.pdf>.

2) 국가교도부(Departamento Penitenciario Nacional)에 따르면,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최근 수년간 수감률을 줄였지만, 브라질은 연 7%에 가까운 수감인구 증가를 보이며 그 정반대의 노정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법무부: *ob. cit.*

3) *Ibid.*

4) 출처: 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www.prisonstudies.org>.

5) 10만 명당 재소자 비율.

6) L. Boiteux y Ela Wiecko (coords.): *Tráfico de drogas e Constituição*, Ministerio de Justicia, Brasília, 2009, disponible en <http://pensando.mj.gov.br/wp-content/uploads/2012/11/01Pensando_Direito.pdf>; L. Boiteux: «Drogas y prisión: la represión contra las drogas y el aumento de la población penitenciaria en Brasil» en Pien Metal y Coletta Youngers (eds.): *Sistemas sobrecargados. Leyes de drogas y cárceles en América*

래범죄로 인한 재소자 수치를 고려해야 브라질의 유행병 같은 교도소 사태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통제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십 년간 브라질은 마약의 불법 통과국에서 대량 소비국으로 변모했다.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감옥의 부족이 심각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현상이다.

마약 범죄를 중범죄로 규정하여 형량 혜택을 줄인 형사정책은 1988년 헌법에 서부터 시작되어 ‘마약법 11343/06’을 통해 강화되었다. 이 법은 마약밀매에 대해 구금 최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마약 소비자들이 철창에 갇힐 가능성은 없어졌지만, 법에는 마약 소지가 여전히 범죄로 남아 있다. 대안적 처벌들이 도입되었지만,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에서의 조사에서 분석된 것처럼 가난한 마약 소비자를 마약 밀매자로 수감하는 등의 부작용들이 발생했다.⁷⁾ 그러므로 1964년~1984년의 독재의 종식과 1988년의 민주헌법 이후 최초의 마약 법률인 이 마약법의 10년 동안의 결과물은 교도소 수감의 증가였다.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브라질의 재민주화는 처벌주의와 형벌국가로 나아감을 의미했고 재소자 수의 큰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동시에 교도소 안팎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들이 더욱 강해졌고, 점점 더 많은 수가 수익성이 높은 마약 거래에 연루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마약 범죄 집단의 강화를 불러온 것이 바로 마약 거래에 대한 형사법적 억압의 증가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가 취하는 비판적 범죄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약 밀매 관련 재소자 수의 증가가

Latina, Transnational Institute /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Ámsterdam–Washington, 2010; L. Boiteux y João Pedro Padua: ‘La desproporción de la Ley de Drogas: los costes humanos y económicos de la actual política en Brasil’ en Catalina Pérez Correa (ed.): *Justicia desmedida. Proporcionalidad y delitos de drogas en América Latina*, Fontamara, Ciudad de México, 2012; L. Boiteux y J.P. Padua: ‘Respuestas estatales al consumidor de drogas ilícitas en Brasil. Un análisis crítico de las políticas públicas (civiles y penales)’ en C. Pérez Correa (ed.): *Consumo, consumidores de drogas y las respuestas estatales en América Latina*, Fontamara, Ciudad de México, 2014.

7) L. Boiteux y E. Wiecko: ob. cit.

마약 밀매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형법제도의 선택적 강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구조적으로 선택적인 형법제도가 의도적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억압을 경찰 활동의 우선순위로 삼는다는 점이다. 사법부도 소송 과정에서 높은 형벌을 적용하고 보석을 줄이고 있다.

브라질에서 마약정책에 관한 공적 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환경만 큼이나 수감 인구 과잉 문제는 이러한 억제 정책의 직접적 영향 하에서 악화하였다. 이 정책은 예방적인 감금을 남용한 반면 대안적 처벌은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데, 대안적 처벌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수감 인구 과잉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교도소 안에서 체감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과도한 재소자 수는 범죄 조직들이 영향력을 확대할 때마다 범죄 조직의 강화로 이어지는 듯하다. 더 많은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보낼수록, 그리고 수감 환경이 나쁠수록, 범죄 조직들은 더 강력해진다. 국가가 교도소 내 통제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고 노동 환경도 열악해지면서 취약해졌다. 반면 범죄 단체의 우두머리들은 재소자들의 조직을 돕고, 원조와 보호도 제공한다.

외부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범죄 조직망이 마약 밀매를 조직하고 조직 자체의 재정을 강화시킨다. 더 많은 범죄자가 수감될수록 범죄 조직들은 더욱 강력해지는데, 이들은 국가의 부재 시에 조직된다. 동시에 마약 거래를 범죄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토대인 금기주의는 불법 시장을 생산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윤을 내는 사업은 더 확장된다. 마약의 금기 그 자체가 불법적 독과점을 만들어내고, 형법적 억제는 마약소비나 거래를 감소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수감, 마약 밀매, 마약 공급의 증가라는 결과를 낳는다.

전체적인 상황은 심각하다. 재소자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적합한 수감환경에 대한 규정하는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교도소 문제는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보수 정치인들은 어처구니없이 높은 형량의 강화라는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옹호한다. 재소자들의 권리 보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치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강도들’을 옹호하는 것과 같다. 그 결과는 브라질에 있는 거의 모든 교도소의 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패, 폭력, 고문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 공식 자료⁸⁾에 따르면, 제공된 공간이 거의 세배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교도소의 부족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것은 교도소 건설에 투입된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수감 인구가 수용 능력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 수는 교도소의 수용 인원보다 월등히 많다. 브라질 교도소의 평균 수감률은 167%다. 2017년 초 첫 학살이 벌어진 아마조나스(259%)⁹⁾ 외에도 론도니아(292%), 페르남부쿠(237%), 알라고아스(228%)와 같은 주들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브라질 감옥의 위기상황은 최근의 폭력사태 이전에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공식 자료들에 따르면, 2013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고의적 살인은 브라질에서 확인된 고의적 살인보다 6배나 높았다.¹⁰⁾ 국제사면위원회는 해마다 연례보고서에 교도소 내의 관행적 고문을 포함해 심각한 폭력 상황을 알려오고 있었다. 구치소와 파출소에는 전기충격, 목조름 인한 호흡곤란, 구타 및 담뱃불로 지지기와 같은 고문과 학대가 널리 퍼져있다.¹¹⁾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브라질의

8) 브라질 법무부: *Infopen 2014*.

9) 대부분의 형무소들이 LGBT, 노인 그리고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도 그렇다.

10) 브라질 법무부: *Infopen 2015*.

11) 제사면위원회: 《브라질, ‘그들은 우리를 동물처럼 대했다’. 브라질의 고문과 학대: 형사시스템 내부의 비인간적 처우와 이에 대한 처벌 부재》, 《Brasil, ‘Eles nos tratam como animais’, Tortura e maus-tratos no Brasil: desumanização e impunidade no sistema da Justiça Criminal》, 2001, disponible en <<https://anistia.org.br/wp-content/uploads/2014/09/Br-Nos-tratam-como-animais-Tortura-e-legado-da-ditadura-militar.pdf>>.

재민주화 이후, 극단적 인구과밀, 악화된 환경, 고문 및 폭력이 브라질 감옥의 고질적 문제가 되어왔다.¹²⁾ 이 문제들은 이미 국제 인권 기구들, 주로 미주인권 위원회(IACHR)와 미주인권법원에 고발되었다.

브라질 전역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비극으로 치달아서야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브라질에서 일어난 최악의 케이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포르투알레그레 중앙교도소, 2000년 미주인권법원에 고발된 페르남부쿠의 아니발브루노 교도소¹³⁾, 론도니아의 우르수브랑쿠 교도소¹⁴⁾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사망 및 고문 사건을 국가가 방지할 능력이 부재함에 대한 국제적 청원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마라냥 주에 있는 페드리냐스 교도소 또한 매우 높은 사망자 수와 폭동¹⁵⁾에서 촬영된 재소자들의 참수 장면으로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2년 상파블루의 헌병에게 111명의 죄수들이 처형된 카랑디루의 학살¹⁶⁾과 같은 가장 비극적인 사태들 중 하나가 과거의 일이 되었

12) 국제사면위원회: 《세계인권상태 2014-2015》, 《O estado dos direitos humanos no mundo 2014-2015》, disponible en <<https://anistia.org.br/wp-content/uploads/2015/02/Web-Informe-2015-03-06final.pdf>>.

13) 페르남부쿠에 있는 구(舊)아니발 브루노 교도소(오늘날의 쿠라두 교도소 단지) 사태는 강간, 구타, 살해시도 등과 같은 고문과 권리침해에 대한 중대한 고발에 대한 중앙과 연방정부의 공식응답 부재에 2011년 인권단체연합에 의해 미주연합의 미주인권법원에 올라갔다. 출처: Archivo Aníbal, disponible en <<http://arquivoanibal.weebly.com/>>.

14) 우르수브랑쿠 교도소 사태는 브라질에서 최초로 미주인권법원의 경계조치를 받은 케이스였다. 2002년 한 번의 폭동으로 적어도 27명이 죽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다. 비정부가구인 글로벌저스티스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감옥에서 100건의 사망이 기록되었다.

15) 페드리냐스 교도소는 2014년 초, 62명의 재소자들이 다른 재소자들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의해 참수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되었다. 그러한 죽음은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나쁜 인간개발지수와 최저기대수명, 가장 높은 영아사망률을 가진 주에서 일어나는 감옥의 인구과잉이라는 맥락에서 발생했다.

16) 1992년 340명의 헌병들이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교도소를 침략해 30분 가까이 머물렀다. 그 결과 111명의 재소자들이 사망했다. 이들 중 102명은 아무도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에 맞아 죽었다. <오늘로부 *O Globo*지에서 보고 사진을 확인 가능. <<http://oglobo.globo.com/brasil/relembre-em-imagens-massacre-docarandiru-8056011>>.

다. 이 사건의 경우, 학살의 명령자와 처형자들의 일부를 처음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욱 상징적이 되었지만, 최근 상파블루 사법재판소는 논쟁 끝에 그 판결을 무효화해버렸다.¹⁷⁾

교도소의 인권 유린과 과밀이라는 이러한 현실에서, 앞서 언급한 마약법이 적용된 최근 10년은 상황이 악화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브라질은 높은 수준의 예방적 수감률(평균 40%)과 억압적이고 보수적인 사법부를 가지고 있는데, 사법부는 전문화되고 급여 수준도 높으며 훌륭하게 조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법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스스로를 공공안전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오늘날 브라질에서 가장 책임이 무거운 권력 중 사법부를 지적하지 않고서는 대량 투옥을 논할 수 없다. 사법부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에 더해, 처벌 권한을 제한하는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경찰폭력을 합법화하며 고문을 모른척하는 지금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이러한 제도적 폭력을 겪는 재소자들은 누구인가? 불평등, 인종주의, 사회적 배제가 만연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해 부정하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한 형태로 억압적 수감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재소자들의 전반적인 면면은 형법제도의 수직적, 처벌적, 그리고 선택적 구조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한다. 2014년 12월의 자료¹⁸⁾에 따르면, 이들은 대개 낮은 교육수준(초등학교를 마치지 못함)을 가진 가난한 흑인 청년들(24세까지)인데, 남성 재소자와 여성 재소자 모두에서 마약 밀매가 가장 빈번한 범죄이다(28%). 여성 재소자만 보면 마약 밀매로 인한 수감률은 약 58%로 훨씬 높아진다. 인종은 브라질의

17) Marina Novaes: «Justiça de São Paulo anula julgamentos de pms pelo massacre do Carandiru» en El País Brasil, 29/9/2016.

18) 브라질 법무부: *Infopen 2014*, cit.

수감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항목이다. 인포펜 2014(*Infopen* 2014)년 자료는 수감된 사람 세 명 중 두 명이 흑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⁹⁾ 이것은 브라질 전체 인구 중 흑인의 비율은 53%인데 비해, 재소자의 61% 이상이 흑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높은 남성 재소자 수 때문에 여성 재소자들이 겪는 극심한 어려움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브라질의 여성 재소자 수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남성보다 훨씬 낮지만 (현재 33,793명, 즉 전체수의 5.8%), 여성 수감률의 증가 속도가 남성 수감률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브라질은 여성 재소자의 수가 5번째로 많은 나라다).²⁰⁾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인구 십만 명당 여성 재소자의 수가 5.8명에서 35.4명으로 뛰어올랐는데, 이는 15년간 567%가 증가한 것이다.²¹⁾ 같은 기간에 남성 재소자의 수는 267% 증가했다.

마약 밀매가 가장 많은 수감을 낳는 범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타 주와 상당히 유사한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재소자들의 특징은 60.8%가 혼자서 활동하다가 체포된 소규모 마약 거래자고, 91.9%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수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연히 마약을 발견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 65.4%는 마약의 거래에만 관여했고, 66.4%는 처음 체포된 경우에 해당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형사재판에서 15.8%만 범죄 가담으로도 유죄를 선고 받았고, 14.1%만이 무기 소지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나머지는 비무장 상태였다.

19) 인포펜(Infopen)에서 2014년 12월과 관련한 정보들로 보강된 브라질의 주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

20) 브라질 법무부: Levantamento nacional de informações penitenciárias, Infopen Mulheres, junio de 2014, disponible en <www.justica.gov.br/seus-direitos/politica-penal/relatorio-infopenmulheres.pdf>. 사상 최초로 국가교도부(Departamento Penitenciario Nacional)는 ‘인포펜 여성 *Infopen Mulheres*’을 냈다. 여기에는 2014년 6월과 관련한 자료들이 실렸고, 여성 수형인구의 젠더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인정했다. 이 자료들은 2013년에 관한 것인데, 젠더분야에서 수치화된 것들이다. 보고된 전체 재소자 수의 일부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

21) Ibid.

총 판결 중 41.6%의 피고인이 최저형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 브라질리아에서도 수치는 비슷하지만, 0.6%만이 마약 밀매와 함께 무기 소지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72.2%가 마약 밀매만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들 중 50.3%가 5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형법제도의 선별성이 두 도시에서 확인된다.²²⁾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현행범을 중심으로 행해진 줄리타 령그루버와 마르시아 페르난데스의 최근 연구는 2013년 마약 밀매 현행범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 3분의2가 소량의 마약을(50그램이하) 가지고 있었고, 구속 당시 이들 중 절반이 단일 마약 물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대부분은 상업화를 위한 운반이라기보다는 개인 소비를 위한 소지인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²³⁾

게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85.5%는 범행 순간에 마약을 상품화하려는 어떠한 행위나 물증 없이 단지 마약만을 소지하고 있었다. 실제로 브라질 법률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형사재판의 경우는 수사를 규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형법 시스템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나 조사를 결론짓기 위한 증거들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확인된 체포자, 확보된 증인 및 기타 증거들)에만 적용된다.²⁴⁾ 요약하자면, 브라질의 교도소 과잉 수감을 설명하고 빈곤의 범죄화 과정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a) 마약거래로 인한 재소자의 증가, 특히 신법(No 11343/06) 이후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은 젊고 가난한 흑인 여성으로, 마약 밀매에서 하급 단계를 차지하며, 마약 사용자이거나 소량의 마약 소지자이고, 대부분의 경우 재범이 아님; b) 현행범으로 잡힌 대다수의 재소자,

22) L. Boiteux y E. Wiecko: ob. cit.

23) J. Lemgruber y M. Fernandes: Tráfico de drogas na cidade do Rio de Janeiro: Prisão provisória e direito de defesa, cesec, Río de Janeiro, 2015, disponible en <www.ucamcesec.com.br/wordpress/wp-content/uploads/2015/10/Boletim-Traficode-drogas-epresos-provisorios.pdf>.

24) Instituto de Pesquisa Econômica Aplicada (ipea): «A aplicação de penas e medidas alternativas, Relatório de pesquisa», ipea, Río de Janeiro, 2015, p. 87.

특히 마약 밀매범에게 임시 석방을 거부하는 브라질의 재판소가 숨기고 있는 억압적 선택, 즉 예방적 투옥; c) 예방적 투옥은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현행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투옥의 대체 형벌을 거의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브라질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소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투옥된 마약 밀매범들의 주요 소속집단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도소 수감은 범죄 조직들 자체뿐만 아니라 교도소 외부에서 이뤄지는 이들의 국제 밀매와의 관계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2017년 1월 아마존 주의 아니시우조뱅 교도소 단지(콤포즈)에서 일어났던 비극의 원인이다. 이 대학살은 아마존 주의 교도소 역사상 최대, 그리고 브라질에서 기록된 가장 큰 학살들 중 하나였는데, 17시간의 폭동은 56명의 사망과 200명 이상의 탈주로 막을 내렸다. 며칠 후 폭동에서 살아남아 같은 네 명의 재소자가 같은 도시에 위치한 교도소로 이송되어 처형되었고, 이로써 사망자 수는 총 60명으로 늘었다.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의 민간 관리자는 소요를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브라질의 두 주요 범죄 집단의 20년에 걸친 동맹이 막을 내리면서 발생한 불화로 생겨났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만도 베르멜류와 상파블루 출신의 코만도 텔 라 카피탈이 마약 시장과 교도소 영향권을 두고 다툼을 한 것이다.²⁵⁾ 두 조직은 전국적으

25) 근 몇 년간 코만도 텔 라 카피탈이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서 온 코카인과 파라과이에서 온 마리화나 적재의 주로 담당하여 마약 및 무기의 국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루트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코만도 베르멜류는 2001년 페르난디뉴 베이라 마르로 알려진 루이스 페르난두 다 코스타가 콜롬비아에서 체포된 후에 이 루트에서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다툼에서, 결정적 와해는 코만도 텔 라 카피탈이 영화 같은 작전에서 '마약거래의 왕'으로 여겨지던 호르헤 라파엘 투오마니라는 마약거래상을 파라과이에서 처형했던 2016년 6월 22일에 발생했을 것이다. 작전에는 길 한 가운데서 마약거래상을 사살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추락시킬 능력을 가진 50구경 기관총까지 포함하여 중무장한 100명의 용병이 참가했을 것이다. Alfonso Benites: 'Assassinato do 'rei do tráfico' na fronteira

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왔고²⁶⁾, 그 역학관계가 원인이 되어 교도소 내 소요가 일어났다. 아마존에서는 대부분의 사망 사건이 코만도 텔 라 카피탈과 연관되어 있었다.

며칠 후 다른 두 주에서 학살이 더 일어났다. 호라이마에서 33명이 참수 및 토막살해 되었고, 히우그란지두노르치의 아우카수스 주립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27명이 죽고 약 10 명이 부상당했다. 모두 마약 밀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며 교도소 내에서 조직화된 범죄 조직들 사이의 감정싸움과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코카인 생산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브라질 북부 지역이 국제 마약거래의 경로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교도소 통제권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은 불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 범죄 조직들의 세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²⁷⁾

따라서 브라질의 두 주요 범죄 조직의 동맹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바로 국제 마약거래망의 통제권을 둘러싼 다툼 때문이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합의를 통해 교도소 안팎에서 평화로운 공존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합의가 깨지자 교도소 내에서의 분쟁과 마약밀매 시장을 두고 벌이는 싸움에 대한 통제가 절대적으로 결여되었다.

브라질의 수감제도의 변화는 재소자들과 피의자들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현행법에 대한 법치주의적이고 인도주의적인 해석을 통해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상 공공보건의 보호라는 공식적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실질적 목적인 수감의 증가와 빈곤의 사회적 통제

deixa em alerta autoridades brasileiras》en El País Brasil, 22/6/2016.

26) Gil Alessi: 《Rebeliões sinalizam fim de pacto entre pcc e cv e espalham tensão em presídios》en El País Brasil, 20/8/2016

27) G. Alessi: 《Massacre em presídio de Manaus deixa 56 detentos mortos》en El País Brasil, 2/1/2017.

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인 마약정책의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서만 브라질의 수감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규모 마약 밀매상들이 아니라, 수익성 높은 마약 밀매의 구조화에 기여는 하지만 가장 덜 중요한 인물들이다.

브라질의 수감 시스템은 오늘날 하나의 화약고다. 수감인원은 과잉이고 비위생적이며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언제라도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만의 위기를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위기는 항시적이며, 가난한 흑인들을 교도소에서 가두어둔다는 것은 마약과의 전쟁을 구실로 하층 계급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통제를 유지하려는 구조적 프로젝트다. 이미 그렇게 진행되는 있는 듯하지만, 위기와 구조조정의 시기에 기존의 형벌 전략을 유지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학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저항이 그 어느 때보다 긴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은영 옮김